



머리글

최남식 베드로 신부 / 살레시오회

예수 성심을 바라보며

6월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성월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번 한 달은 '예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귀를 가만히 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쿵쿵쿵”하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바로 당신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소리인 듯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느냐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저는 신기하게도 그 심장 소리가 어느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변화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심장 소리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고통과 원망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잠시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소년원에 처음 들어섰을 때가 수도원 입회한 20살, 앳된 청년이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왜 이곳에 와있는지, '무엇을 잘못해서 이곳까지 왔을까' 문기도 두려웠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잠시, 저의 발걸음은 언제나 그들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많은 봉사자들,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한결같이 아이들 옆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변하는 신앙의 신비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 체험은 한 순간으로 끝나는 체험이 아닙니다. 그 체험은 늘 새롭게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부활 체험입니다.

몇 달 전 어느 분류심사원 선생님께서 저를 먼저 찾아와 “신부님 제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나고서는 “저에게 고해성사를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나고서는 “이제 제가 성당을 나가고 있습니다.”라며 다시금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에 기대어 “두근두근”거리는 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 부활의 삶, 기쁨의 영성을 살도록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많은 분들께 청합니다. 우리의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 회개의 삶인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각 교정시설 부활 미사



4월 15일(화) 서울구치소 여사,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남사,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16일(수) 서울구치소 남사 17일(목) 서울동부구치소 남사, 18일(금) 서울구치소 최고수(사형 확정자), 19일(토) 분류심사원, 고봉중고등학교, 23일(수)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소년학교) 25일(금)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에서 부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야외 미사



5월 12일(월) 춘천교구 가톨릭회관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야외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부위원장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예수님은 단순한 인도자가 아니라 당신을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여러분의 헌신은 우리가 만나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라며, “오늘 야외 미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다양한 꽃이 만발한 춘천교구 가톨릭회관과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을 둘러 하느님께서 주신 자연 안에서 충만한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사목국 서품 2년 차 사제 연수



5월 14일(수) 성앵베르센터에서 서품 2년 차 사제 연수 중 사회사목국의 15개 위원회가 부스를 준비하여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연수에 참석한 16명의 서품 2년 차 사제들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스에 방문하여, 수용복도 입어보고 교정사목의 활동사진과 50주년 기념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봉사자와 후원회원들에 대하여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2년 차 사제들이 교정사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로맨스를 꿈꾸며

홍수연 마틸다_ 서울구치소 여사

요즘 정말 살맛이 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과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틀면 경제 대공황 등 우울한 소식뿐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멋진 드라마를 만나, 로맨스(낭만적인 사랑)에 빠지고, 설레고, 심쿵함에 도취한 제 모습에 ‘이게 행복이지’라며 감탄하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정 봉사에 대한 집필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17년 전 공적인 일로 군산교도소 수감자를 방문한 일과 그의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법률소비자연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에 동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출처: 1982년 ‘허쉬허쉬’ p.18.)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 과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죄인일까? 무죄로 풀려난 자들은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이 찝찝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세상 논리 속에,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자유를 구속당한 그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모든 수용자에게 일반화할 순 없지만, 극소수의 재벌가보다 그렇지 않은 다수의 서민이 더 많은 세상이니깐. 그래서 서민 편에 서고 싶었던 저는 교정 봉사를 꿈꾸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교정 봉사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점은, 수용자나 저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우리는, 죄 앞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나이 어린 마약사범 수용자들이 많아서 충격이었고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간혹 외국인들도 몇 분 보였고, 그들을 통역하는 수용자가 계셨습니다. 본인도 힘드실 텐데 열심히 외국인들을 돕는 모습이 어찌나 멋지고 고맙든지, 그녀는 제 마음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여사는 20대 초중반 여성 수용자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그래서 때론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이 열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게다가 봉사자들을 무척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미사의 finishing touch인 신부님의 꽃 전달식은 영화미소(拈華微笑) 그 자체입니다. 영화미소는 ‘꽃을 집어 들고 조용히 미소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처럼 침묵 속에서 서로의 훈훈한 마음이 전해지는 현상이 매주 반복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와줘서 반갑고 감사하다.’라는 따스함이 흘러넘치는 곳이 구치소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는 미사 속에서 홍해의 모세 기적 같은 이심전심의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로맨스에 빠지게 해주신 하느님과 그분들 모두에게.

교정시설 안이든, 밖이든 아직도 뒤통뒤통 햇발 쬔기도 하고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는, 언젠가는 슬기로울 우리의 인생.

tvN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도 괜찮아질 것이고, 슬기롭지 않아도 괜찮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두 천국의 문 앞에 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네르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前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사울이 무속에 빠지고, 다윗에 대한 질투에 눈이 멀기도 하였으며, 주변 국가와의 외교도 엉망이어서 전쟁도 많았습니다. 팔리스티아인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그 장남 요나탄마저 죽었지만, 그리고 다윗이 또한 기름부음을 받아 왕으로 등극했지만, 모두가 다윗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네르는 ‘아버지는 네르(촛불, 등불)’라는 이름대로, 네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네르의 아버지 네르와 사울의 아버지 키스, 모두 아비엘의 아들입니다(1사무 9,1; 14,51). 즉 사울과 아브네르는 사촌관계입니다. 아브네르는 사울 왕의 집권 초기부터 군대의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사울 옆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1사무 17,55-58). 초창기부터 사울의 군 책임자였습니다. 실제로 식탁에서조차 사울의 바로 옆자리에 앉을 정도(1사무 20,25)의 최측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밤중에 사울을 칠 기회가 있던 적이 있음에도 살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 다윗은 아브네르에게 “주군을 지켜 드리지 못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호통을 칩니다(1사무 26,16). 아마도 경호를 겸하고 있던 듯 합니다. 사울 시대의 국방부 장관 겸 경호처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의 왕국이 되도록 통합하는데 협력하거나 혹은 조용히 물러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왕국을 세웁니다.

사울 군대의 장수이며 네르의 아들인 아브네르가 사울의 아들 이스 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 보셋을 길앗과 아수르족과 이즈르엘, 에프라임과 벤야민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2사무 2,8-9)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다.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갈수록 약해졌다. (...)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네르는 사울 집안에서 점점 강해졌다. (2사무 3,1; 3,6)

선왕의 후궁마저 범하고, 또 그것을 꾸짖는 왕 이스 보셋에게 격노하며 대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들먹거리며, 그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일을 도모합니다. 성경에서 이스 보셋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고 할 정도로 개국 공신이던 그가 오히려 적대국에 나라를 넘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기쁘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에게 하느님은 그저 명목일 뿐입니다. 아브네르가 다윗 왕좌를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과 다윗의 약속을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이스 보셋을 왕으로 세우지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한 민족을 갈라지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생각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아브네르가 사울 군대의 장수라고 소개된 직후 아말렉과의 싸움을 보면, 하느님은 그들에게 딸린 것을 완전히 없애라고 하였는데,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좋은 것은 없애 버리지 않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없애버렸습니다(1사 무 15,1-9). 성경은 이때부터 하느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전리품을 왜 없애버립니까,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며 아브네르가 사울을 설득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짜 맞추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때도 아브네르의 입김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생각과 뜻에 맞추어 하느님 말씀을 재단합니다. 내 이익 앞에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잊곤 합니다. 돈 앞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사라집니다. 경제적 이익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밟아버립니다. 하느님을 언급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짓누르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법 조항을 이야기하며, 수용자의 인권을 들먹거리지만, 재벌 한 사람만 적용되는 가석방, 권력자 한 사람만 풀어주기 위한 법 해석은 힘을 잃습니다. 규정과 지식, 교리와 신학을 들먹거리지만, 사랑이 빠지고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준은 상처받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그저 칼일 뿐입니다. 갈라지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만 옳다고 고집합니다. 아브네르는 결국 자신이 죽인 아사엘 피의 대가로 죽게 됩니다. 자기 이익, 권력을 위해 법과 공동체와 하느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른 자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절대 다시는 이처럼 살아가지 않겠다.”

정00_ 기쁨과희망은행 특별자금 지원

제가 변화하면 주변 모두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과 좋은 결과들이 사회에 미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죄를 저지르기 이전보다 교정, 교화되어 올바른 품행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굳게 믿고 있기에 반성을 거듭하고 거듭하며 갱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평생을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의 배움과 올바른 생각이 부족했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과 인식에 있어서 턱없이 모자람을 느꼈습니다. 건강하고 오로지 깨끗한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고, 모자라고 부족한 저로 인해서 결국엔 피해받은 사람이 생겨남에 한없이 스스로 더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머릿속 곳곳에 깊은 생각이 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절대 다시는 이처럼 살아가지 않겠다.” 반성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살아가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시점이자, 가장 많은 스스로와 외부의 가르침을 받게 된 시점이며, 진심을 담아 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의 깊이를 가장 깊게 측정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와 같은 일을 제가 자처해서 너무도 괴롭지만, 이를 극복하고 잘못에 대한 피해자분의 피해 회복과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앞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교정되는 저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제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가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만큼 다시는 저로 인해서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존재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사회에 어떤 피해자도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누구일지라도 타인에 의해 강압적으로 힘들어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저부터 실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깨닫는 만큼 제가 먼저 앞서서 사회에 수많은 범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피해받는 피해자분을 포함한 어떠한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보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몸소 느낀 바들을 전하며 주변 모두가 법을 두려워하고 엄중하게 느끼며 본인으로 인해서 함부로 타인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처받을 수 있음에 경계를 둘 줄 알도록 알려주고 싶습니다.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피해주지 않는다는 게 사실상 이뤄지기 힘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직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피해자와 가해자라도 줄어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을 통해 안정된 삶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머뭇거리지 않고 준법적으로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o 감성미 세실리아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성가대 단원 [redacted]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자매님의 지도 편달로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사회에서도 해보지 못한 성가대 활동은 저에게 무한한 기쁨
이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

이곳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편지와 기도로 밖에 전하지 못하기에
잘 못쓰는 글솜씨로 감사의 미을 전해 봅니다.

이제 얼마되면 저는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매주 3일간 해왔던 종교 활동으로 사회 나가서도 신앙인으로
잘 똥기가 생겼습니다.

매주 이곳을 찾아 주시는 봉사자 분들과 자매님을 볼때면 '나라면
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곤 합니다.

죄의 댓가를 치루고 있는 저희에게 사랑을 보여 주신 자매님
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항상 건강히 좋아 하시는 노래 오래 오래 부르시고 자매님
가정에 따뜻함이 가득 하길 항상 기도 하겠 습니다.

밖에는 봄이라 꽃이 많이 피웠겠지요? 가족들과 꽃놀이
도 가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성미 세실리아님 노래 잘 배우고 사랑 많이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7월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행사 알림

- 6월 2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6월 9일(월)~13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남부교도소
- 6월 11일(수), 13일(금), 16일(월), 18일(수)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3기 인성교육
- 6월 18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5/04/16~5/15)

2025년 4월~5월에는 하느님께 영광, 최고수 은퇴 봉사자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